

광주시-전남도, 복지·보건 통합체계 구축 시동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시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보건 분야의 행정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복지·보건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 연계와 실질적인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첫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행정 통합에 따른 제도적 차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시·도 관계자들은 복지·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핵심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각기 다른 지원 기준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비교 분석했다.

양 시·도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강화 ▲감염병 공동 대응 ▲취약계층 지원체계 연계 등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중점 논의했다. 또 행정구역 통합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 방식의 차이도 사전에 조정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수준 높은 복지·보건 서비스를 누리는 균형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상이한 수혜 기준과 행정 절차를 단계적

7월 통합특별시 출범 대비 정책 연계 강화... 실무협의 본격 가동 지역별로 다른 수혜기준·행정절차 단계적 정비해 균형체계 구축



으로 정비하고, 통합돌봄과 공공의료로 중심으로 한 '광주·전남형 협력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복지·보건·의료 분야별 실무협의를 정례화할 방

침이다. 이를 통해 행정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할 예정이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복지·보건·의

료 분야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이라며 "양 시·도의 강점을 결합해 시민과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돌봄·의료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광훈 기자

복구, 공직자 협업으로 정책 발굴

오는 10월까지 공직자 정책 연구모임 '굿파트너' 운영

광주광역시 복구(구청장 문인) 공직자들이 가진 다양한 행정 경험을 결합해 창의적인 정책 발굴에 나선다. 19일 복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공직자 협업 연구모임 '굿파트너'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굿파트너'는 공직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제도로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조직 내 협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각기 다른 2개 이상의 부서에 소속된 공직자로 구성된 8개 팀이 정책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과제는 ▲창의정책 ▲협업·공모 전략 ▲융합형 정책 등으로 나뉘며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에 중점을 둔다.

참여팀은 과제별 토론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소 1개월 이상 활동한 뒤 중간보고서와 최종 연구 성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소관부서 검토와 심사를 통해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실제 구정

정책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중간 점검을 의무화하고 사업 부서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는 등 연구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가 추가됐다.

복구는 우수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낸 공직자에게 포상금과 상장 수여는 물론, 성과평가 가점, 상시학습 인정, 협업 포인트, 배낭여행 선불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굿파트너' 운영을 통해 '복구형 생성형 AI 구축', '중장년 맞춤형 돌봄사업', '모바일 조직도 개선' 등 다수의 연구과제가 발굴됐으며 구정 집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구성하고 있다.

문인 복구구청장은 "굿파트너는 공직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송현근 기자

광주 남구민, '이젠 체감한다' 자매도시 교류 진화

행정 교류 넘어 주민 체감형 교류로 확대

광주 남구 효천지구 주민들은 지난 1월과 2월에 전라북도 순창군 용골산 하늘길과 전라남도 진도군 윤림산방 등을 무료로 탐방했다. 두 지역 모두 남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여서 입장료 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하면서 관내 주민들이 누리는 실질적인 혜택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단순한 행정 교류를 넘어 주민 체감형 교류로 보폭을 넓히면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남구와 자매결연을 한 도시는 18곳이다. 이중 관내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도시는 전남 완도군과 진도군, 보성군, 함평군, 장흥군, 담양군, 화순군을 비롯해 전북 순창군과 고창군, 경기도 안산시까지 총 10곳이다.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도시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지난 2024년부터다. 남구는 자매결연이 행정 교류에만 그치지 않고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실무자 협의를 통해 생활 밀착형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데 집중했다.

남구와 우정을 쌓으면서 혜택을 제공

한 도시가 6곳에서 현재 10곳으로 늘어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최근 교류의 문을 확대한 순창군은 강천산 국립공원과 용골산 하늘길을 관내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고창군은 고인돌 박물관과 고창읍성 입장료 50% 할인을 비롯해 민간 시설인 상하농원과 석정온천휴스파도 각각 30%와 2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담양군은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랜드, 한국대나무박물관까지 무료 입장 혜택 범위를 넓혔으며, 화순군은 2곳의 파크골프장을 사용할 때 이용료 할인 혜택과 함께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제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 함평군은 올해부터 대표 축제인 나비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 입장료 50%를 할인하기로 했으며, 자매결연 도시간 혜택 정보는 남구청 홈페이지(www.nangu.gwangju.kr) 우리남구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자매결연 도시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문화와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예산 3억4천여만 원을 확보하고 구직 단념 청년 지원에 나선다.

이 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 등 취업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청년

서구, 구직단념 청년 재도전 지원 나선다

취업역량 프로그램·최대 350만원 인센티브 지원...78명 모집

이며 구직 단념 조건을 충족하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서구는 구직준비도 검사와 상담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하고 ▲단기(5주·18명) ▲중기(15주·39명) ▲장기(25주·21명) 과정 등 총 78명을 대상으로 밀착 상담과 사

례관리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역기업 탐방 등으로 구성하며 서구 청년센터 플러스 등 지역 청년 인프라와 연계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한다.

참여자는 과정 이수 후 취업 또는 창업

에 성공할 경우 5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고용24' 또는 서구 청년도전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 청년도전지원센터(062-716-2850)로 문의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청년의 재도전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자립준비청년 지원 플랫폼 '이음톡!' 지속 운영

민·관 협력으로 보호종료 청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광주 동구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 자립지원 플랫폼 '이음톡!'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음톡!' 사업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연계해주는 오프라인 통합지원 플랫폼이다.

동구는 지난해 지역사회 10개 민·관 기관과 협력하여 ▲신체·정서 ▲청년정책 ▲취업역량 ▲경제·생활 ▲후원금·물품 ▲자조 모임 등 6개 분야에서 총 467건의

자립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힘을 모았다.

동구는 2026년에는 특히 자립준비청년 개인별 욕구와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사회 진입 과정에서 자신감과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음톡!은 자립준비청년 한 명 한 명이 지역사회와 촘촘히 연결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울타리"라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전남도, 농촌용수 확보·시설 점검 등 농업재해 선제 대응

저수지 수위와 양수기 관리·관정 개발·위험시설 정비 등 강화

전라남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집중호우 등 농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용수 공급 대책과 우기철 농업기반시설 재해대책을 추진한다.

영농기 가뭄에 대비해 저수지 저수율과 농업용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양수장 가동과 하천수 활용 등 대체 수원을 확보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강우량이 적을 때는 하천수 활용과 저수지 간 물 채우기, 용수 순환 이용 등을 통해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저수지 간 다

단양수 작업에 필요한 자재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농경지 직접 양수를 위한 양수기와 용수관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물 절약 영농 홍보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관정 개발과 관수시설 설치 등 농업용수 확보 사업도 추진한다. 중형관정 개발과 양수장 신설·보수, 관로 설치, 저수지와 배수로 준설 등을 통해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선호 기자

주최 | 영암군 YEONGAM-GUN | 주관 | 광안문화관광재단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2026 영암 왕인문화축제

4.4.토 - 4.12.일

전라남도 영암군 왕인박사 유적지, 상대포 일원

위대한 항해